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

원 순 옥 (경운대학교)
〈nasongjung@hanmail.net〉

강 주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kangjy@cu.ac.kr〉

1. 머리말

우리 땅에서 처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1] 이래로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어 교육 관련 분야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어에 대한

1) 여찬영(2011)에서는 1959년 4월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의 개원을 현대적 의미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면서 학습자 변인에 따른 교재 개발에도 힘써 왔다. 그에 따른 성과로 한국어 교육 초기에는 대학 기관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간해오던 한국어 교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국립국어원이나 여타의 기관에서 결혼이주민[2],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재가 편찬되었고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을 위한 교재들도 발간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교육 성과와 경험이 반영된 교재들이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의 첫 단계를 여는 한글 자모[3] 교육에 있어서, 자모의 숫자나 제시 순서 그리고 자모의 음가를 나타내는 발음 기호 등에는 교재마다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학습 대상에 따른 교육 방법론의 차이를 들어 자체적으로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해오면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통합적 차원의 연구는 소홀히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글 자모 교육이 학습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이 동원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자모의 숫자와 순서, 발음 기호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교재마다 다르다는 것은 한글을 처음 대하는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한글 자모 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글 자모 교육이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이 다른 기준일[4] 수가 없다고 보기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규정에 제시된 한글 자모 체계를 살펴보고, 초등학교의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분석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

2) 이화숙(2013)에서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주하는 여성 집단의 명칭이 65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문화적 편견도 개입되지 않은 '결혼이주민'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오광근(2008, 186)에서는 '자모(字母)'는 문자적 개념이며 '자음과 모음'은 언어적 개념이므로 자모 교육을 목표로 한글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자음'과 '모음'이란 용어보다는 '자음자(子音字)'와 '모음자(母音字)'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문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말의 글자와 소리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모 교육'으로 사용한다.

4) 한글 자모 교육 내용이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이 서로 달라서도 안 되겠지만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교재가 특히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들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의 가정에서 장차 자녀 교육을 책임질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다. 만약 결혼이주민들이 배운 한글의 내용과 초등학교 자녀들의 교과서에 실린 한글 정보에 차이가 있다면 이들이 자녀들을 지도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 자모 교육의 내용은 큰 틀에서 기본 정보를 표준화하고 대상에 따른 교수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자료 분석과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

2.1.「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서의 자모 규정

한국어 교재가 담고 있는 한글 자모의 숫자와 제시 순서가 통일성이 없는 이유를 앞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통합적 연구가 부족했음에 두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의 국어 어문 규정에서 제시해 놓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기술 내용이 일차적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글 맞춤법」 제2장은 한글 자모에 대한 규정으로 한글 자모의 수, 순서와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한글 맞춤법」의 자모자 관련 기술 (제2장)

ㄱ.

> 제4항 :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ㄴ.

>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ㄷ.

>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편은 자음과 모음의 수,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발음이 규정되어 있다. 또 제4장은 '받침의 발음' 편으로 받침으로 소리 나는 7개 자음과 겹받침의 대표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표준 발음법」의 자모 관련 기술 (제2장 / 제4장)

ㄱ. 제2항 :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ㄴ. 제3항 :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ㄷ. 제4항 :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ㄹ. 제5항 :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ㅁ. 제8항 :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1ㄱ)은 기본자 24자를 제시한 것이고, 이들 24자로는 적을 수 없는 문자를 1ㄴ)의 [붙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2)에서는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합하여 한글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시하여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어 학습자들도 한글 자모의 숫자를 기억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문자와 음운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문자와 음운을 분리하여 자모의 수를 제시한 까닭에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현장의 모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미미(2012)[5]에서는 겹자음, 겹모음으로 불리는 글자들이 하나의 음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붙임의 내용도 한글 자모자의 목록에 넣을 것을 주문했다. 이 견해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한글 자모자의 수를 40개로 제시함으로써 상당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자모의 제시 순서도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한 순서와는 다르게 「표준 발음법」에서는 사전 배열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한국어 교재에서도 자형 중심이냐 음운 중심이냐에 따라 순서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2.2. 한국어 교재의 한글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기관, 교재 등의 변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5) 김미미(2012)에서는「한글 맞춤법」의 자음자 관련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제4항 한글 자모자의 수는 마흔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 (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1]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자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자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자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급수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내용은 한글 자모라는 공통된 내용이다. 그러나 기초 또는 초급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자모 교육은 자모의 숫자나 제시 순서 그리고 자모의 음가를 나타내는 발음 기호 등에서 교재마다 차이가 있어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정부 각 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사설 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6]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기관의 교재를 일반 목적으로, 그 외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다른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특수 목적의 교재로 분류하여 각 교재가 담고 있는 자모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7]

(ㄱ) 특수 목적 교재(국내)

국립국어원. 2010.『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한글파크.
국립국어원. 2012.『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한글파크.

(ㄴ) 특수 목적 교재(국외)

국립국어원. 2011.『세종한국어 1』. 가삼기획.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2.『한글학교 한국어 1』. 국립국제교육원.

(ㄷ) 일반 목적 교재(대학 기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연세 한국어 1-1』.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서강 한국어 1A』. 도서출판 하우.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2010.『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 한글파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이화 한국어 1-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서울대 한국어 1A』. 문진미디어.

(ㄱ)은 결혼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 목적의 교재이고, (ㄴ)은 국외의 세종학

6) 교육부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하고 재외 동포 교육을 위한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국어원을 관장하여 세종학당 등을 지원한다. 외교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7) 목적별로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대상에 따른 한국어 교재의 차이점을 살피기 위함이며, 교재의 배열순서는 출간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교재 위주로 선정하였다.

당과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와 아동을 위한 교재, (ㄷ)은 일반적인 학문 목적의 성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통합 교재이다.

목적별 교재에 포함된 한글 교육과 관련한 주요 학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특수 목적 교재의 한글 자모 내용

교재 명	단원	주요 내용
(1)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예비 편	· 한글의 자모: 자모표 40개를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배열 모음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 배열 · 음절의 구조 제시 · 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자음 2: ㄲ ㄸ ㅃ ㅆ ㅉ · 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ㅆ / ㄹ / ㅁ / ㅂ ㅍ / ㅇ
(2)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단원0〉 예비 1과 (한국어 모음·자음)	· 모음표 제시 · 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 모음 2: ㅑ ㅕ ㅛ ㅠ ㅖ ㅒ · 모음 3: ㅚ ㅟ ㅘ ㅝ ㅞ ㅙ ㅢ · 자음표 제시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역, 니은, 디귿, 리을……] · 자음 2: ㄲ ㄸ ㅃ ㅆ ㅉ
	예비 2과 (자음+모음)	· 결합(1):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표로 제시 · 글자표 쓰기 연습 · 어휘 익히기 연습
	예비 3과 (자음+모음+자음)	· 결합(2): ‘자음1+모음+자음2’의 결합에서 ‘자음2’를 받침으로 제시 · 받침과 받침의 발음 제시, 7종성 발음에 대한 설명 · 겹받침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ㅀ, ㅄ’도 제시 · 문장 쓰기 연습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발간된 『여성결혼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국어 1』은 예비 편에 앞서 한국어의 계통, 한글의 창제시기, 한글의 제자 원리, 문자의 조합의 방법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놓았다. 1단원에 앞서 수록된 예비 편에서 한글 자모 40개를 표로 제시하고 발음을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고 있다. 또 음절의 구조를 '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모음 1' ~ '자음 2'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순서에 맞게 쓰도록 하고 관련 음절을 듣고 어휘를 익히는 연습을 한다. 받침 학습에서는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자와 대표음 7가지를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음 발음을 한글로는 제시하지 않고 국제음성기호로만 표기해 놓았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은 본 단원에 앞선 예비편에서 한글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원 0의 예비 1과에서는 모음자 21개를 단모음과 [j][8]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ㅢ'를 포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자음을 평음, 격음, 경음 순으로 모두 제시하고 있다. 또 자모자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비 2과에서는 '자음+모음'의 결합 형태를 표로 보여주며 어휘를 읽고, 듣고, 쓰는 연습을 한다. 예비 3과는 '자음1+모음+자음2'의 결합 형태를 표로 보여주며, '자음2'를 '받침'으로 제시한다. 이어 'ㄸ, ㅃ. ㅉ'를 제외한 모든 자음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받침의 발음은 대표음 7가지임을 설명해 놓았다. 또한 받침에는 'ㄲ,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도 있다는 설명을 보태어 겹받침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위의 두 책은 같은 기관에서 만들었지만 자모의 제시 순서와 발음 기호 표기법, 자모의 명칭 표기 유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책의 주 사용자가 다르다고 해서 자모의 순서가 다르게 제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에서는 자모의 명칭만 한글로 표기하고 자모의 발음 기호는 표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에서는 자모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자모의 발음기호만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결혼이주민들은 장차 다문화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의 내용에도 자모의 한글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뒤에서 다루게 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자모 교육 내용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로 표기하고 있다.

다음은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나타난 한글 학습 관련 내용이다.

8) 반모음의 국제음성기호 표시는 교재에 따라 [j] 또는 [y]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교재의 내용을 소개할 때는 교재가 제시하는 기호를 따르고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기호로는 [j]를 사용한다.

2) 국외 특수 목적 교재의 한글 자모 내용

교재 명	단원	주요 내용
(3)세종 한국어 1	예비편 1. 한국어와 한글	· 한국어 사용 인구와 한글 창제에 관한 설명(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언해본) ·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모음의 천지인의 원리 설명 · 한글의 편의성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소개
	예비편 2. 한글 자모	· 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역, 니은, 디귿, 리을……] · 음절 1: '자음+모음' 결합의 음절 만들기 및 어휘 학습 · 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자음 2: ㄲ ㄸ ㅃ ㅆ 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 음절 2: 이중모음과 된소리로 된 어휘 학습 · 받침: '자음+모음+자음' 결합의 음절 구성 설명 및 자음의 7가지 대표음 설명 ㄱ ㅋ ㄲ (ㄱ) / ㄴ (ㄴ) / ㄷ ㅅ ㅆ ㅈ ㅊ ㅌ ㅎ (ㄷ) / ㄹ (ㄹ) / ㅁ (ㅁ) / ㅂ ㅍ (ㅂ) / ㅇ (ㅇ) · 음절 3: 받침의 위치 설명 및 어휘 학습 · 종합 연습: 어휘 듣고 찾기
(4)한글학교 한국어 1	예비	· 모음 Ⅰ: ㅏ ㅑ ㅓ ㅕ / ㅗ ㅛ ㅜ ㅠ / ㅡ ㅣ · 자음 Ⅰ: ㄱ ㄴ ㄷ ㄹ / ㅁ ㅂ ㅅ / ㅇ ㅈ ㅊ / ㅋ ㅌ ㅍ ㅎ · 모음 Ⅱ: ㅐ ㅒ ㅔ ㅖ / ㅘ ㅙ ㅚ / ㅝ ㅞ ㅟ ㅢ · 자음 Ⅱ: ㄲ ㄸ ㅃ ㅆ ㅉ · 우리는 가족: 평음–격음–경음 순으로 자모자 제시 및 어휘 연습 (ㄱ ㅋ ㄲ / ㄷ ㅌ ㄸ / ㅂ ㅍ ㅃ / ㅅ ㅆ / ㅈ ㅊ ㅉ) · 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ㅈ ㅊ / ㄹ / ㅁ / ㅂ ㅍ / ㅇ

『세종한국어 1』은[9] 예비편 1에서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외 지역의 한국어 사용 인구를 나타낸 지도와 세종대왕을 소개하고 훈민정음 언해본의 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의 모양과 하늘·땅·사람을 모방하여 만든 모음자의 모양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한글의 특성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시한다. 예비편 2에서 본격적인 한글 자모와 음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모와 음절 1', '자모와 음절 2', '받침과 음절'의 순으로 구성하여 배운 자모로 음절 학습을 하며 어휘와 이어지게 하였다. 자모자의

9)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세종한국어』는 24개국, 42곳의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이다. 『세종한국어 1』은 한글 학습을 다루고 있는 예비편을 시작으로 총 12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를 다룬 4개의 주제 과가 3과마다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이름을 제시하고 '자음+모음+자음'의 결합 형태를 설명하며 받침으로 쓰이는 자모자와 대표 소리, 쓰이는 예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덧붙이는 설명에서 '자음은 모두 받침으로 쓰인다.' 라고 하여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음자 'ㄸ, ㅃ, ㅉ'까지 포함하는 결과를 낳았다. 『세종한국어 1』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특성상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예비편에 포함하고 있다.

『한글학교 한국어 1』[10]은 아동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 자료를 통해 자모자를 배열하고 있으며, 제시 순서는 「한글 맞춤법」과 같지만 층위를 나누어 한 번에 제시하는 자모자가 5개가 넘지 않도록 배열하였다. 자모자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지 않고 한글 '가, 나, 다…'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음과 자음을 학습 한 후 이어지는 '우리는 가족'에서는 '평음-격음-경음' 순으로 자음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시하는 받침자 중에는 'ㅆ'과 'ㅎ'이 빠져있는데, 국내의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국어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자모자의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모음자를 먼저 제시한 점, 기본 모음자와 복합 모음자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르다.

다음은 국내의 대학 기관에서 발행한 교재에 나타난 한글 학습 관련 내용이다.

3) 대학 기관 교재의 한글 자모 내용

교재 명	단원	주요 내용
(5)연세 한국어 1-1	한글	· 한글 소개: 한글 창제와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설명 〈언어권별〉 · 자음자와 모음자의 구성 원리 ·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고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등에 따른 단모음을 표로 제시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을 표로 제시 · 모음 1: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에 외 위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역, 니은, 디귿, 리을…] · 모음 2: ㅑ ㅕ ㅛ ㅠ ㅒ ㅖ · 자음 2: 가 다 바 사 자 / 카 타 파 차 / 까 따 빠 싸 짜 · 받침 : ㄱ ㅋ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 ㄹ / ㅁ / ㅂ ㅍ / ㅇ · 겹받침 : ㄳ, ㄶ, ㄵ, ㅙ, ㅝ, ㅄ / ㄺ, ㄻ, ㅭ

10)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발행한 교재로 재외동포자녀들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9개의 학습 단원과 1개의 종합 연습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에 앞서 예비편에서 한글 자모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교재 명	단원	주요 내용
(6)서강 한국어 1A	한글1	· 모음 1: 아 이 어 / 우 오 으 · 자음 1: ㅁ ㄴ ㄹ ㅇ
	한글2	· 모음 2: 야 여 요 유 / 의 · 자음 2: ㄱ ㄷ ㅂ ㅅ ㅈ · 받침 1: ㅁ ㄴ ㄹ ㅇ
	한글3	· 모음 3: 에 애 / 외 왜 웨 · 자음 3: ㅋ ㅌ ㅍ ㅊ ㅎ · 받침 2: ㄱ ㄷ ㅂ ㅅ ㅈ
	한글4	· 모음 4: 얘 예 / 위 와 워 · 자음 4: ㄲ ㄸ ㅃ ㅆ ㅉ · 받침 3 ㅋ ㅌ ㅍ ㅊ ㅎ
(7)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1	1 (한글과 한국어)	· 한글 소개: 한글 창제와 '훈민정음'의 뜻, 제자 원리 설명 · 기본 자모자(자음 14자, 모음 10자) 제시 〈자음 명칭 표기〉 · 복합 자모자(자음 5자, 모음 11자) 제시 〈자음 명칭과 구조 표기〉 · 쓰는 순서 제시 · 한국어의 특징(어순과 조사와 어미, 높임법 의성어와 의태어) · 컴퓨터 자판 익히기 그림 제시
	2 (예비편 1)	· 모음 1: 아 어 오 우 으 이(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모음 2: 애 에 외 위(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한국어 모음도(구강 구조 그림) 제시, /오/와 /어/의 혀 위치 비교 그림 · 종합편: 빙고 게임
	3 (예비편 2)	· 자음 2: ㅋ ㅌ ㅍ ㅊ ㅎ(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모음 3: 야 여 요 유 얘 예(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자음 3: ㄲ ㄸ ㅃ ㅆ ㅉ(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모음 4: 와 왜 워 웨 의(쓰고 읽기 연습, 듣고 쓰기 연습) · 듣고 연결하기(배운 낱자 활용)
	4 (예비편 3)	· 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ㅆ / ㄹ / ㅁ/ ㅂ ㅍ / ㅇ(쓰기 연습, 듣고 소리가 다른 것 고르기) · 듣고 연결하기(배운 낱자와 어휘 활용)
	5 (예비편 4)	· 교실 표현 1 · 교실 표현 2 · 기본 표현
	6 (예비편 5)	· 예비편 복습: 듣고 고르기, 듣고 쓰기, 읽기, 말하기 · 숫자 익히기

교재 명	단원	주요 내용	
(8)이화 한국어 1-1	제1과 한국어와 한글	Part 1 한국어와 한글 소개	· 한국어 사용 인구와 한글 창제의 원리 설명 · 자음 상형 기관 표기 · 한글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제시하고 음절 구성 설명 〈교재에 따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설명〉
		Part 2 한글 익히기	· 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역, 니은, 디귿, 리을…] · 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자음 2: ㄲ ㄸ ㅃ ㅆ 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 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ㅆ / ㄹ / ㅁ/ ㅂ ㅍ / ㅇ
		Part 3 문장 만들기	· 문장의 구조 (‘주어+동사’, ‘주어+목적어+동사’) 설명 · 문장의 형태 (평서형, 의문형, 과거형 등) 설명
(9)서울대 한국어 1A	한글 개관		· 한글 소개: 한글 창제와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설명 〈영문 번역 포함〉 · 자음과 모음: 자음 19개, 모음 21개를 표로 제시 · 한글의 특징: 음절 구조 설명
	한글 1		· 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 종합 연습: 음절 읽기 학습
	한글 2		· 모음 2: ㅑ ㅕ ㅛ ㅠ · 자음 2: ㅋ ㅌ ㅍ ㅊ · 자음 3: ㄲ ㄸ ㅃ ㅆ ㅉ · 종합 연습: 읽기 자료에서 들은 단어의 글자 찾기
	한글 3		· 모음 3: ㅐ ㅔ ㅒ ㅖ ㅘ ㅝ ㅙ ㅞ ㅚ ㅟ ㅢ · 받침 :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 ㄹ / ㅁ / ㅂ ㅍ / ㅇ · 종합 연습: 간판을 읽어보고, 거리에 있는 간판 찾아 쓰기

『연세 한국어 1-1』은 본 단원 학습에 앞서 각 언어권별로 한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모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음을 전설·중설·후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안울림소리·울림소리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10개의 단모음과 음가, 쓰는 순서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음자는 음가와 자음 명, 쓰는 순서를 제시하고 이어서 나머지 11개의 이중모음을 제시하였다.[11] 자모자의 음가는 국제음

성기호로 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음의 평음과, 격음, 경음을 표로 구별하고 사용되는 어휘로 예를 들고 있다. 받침 설명에서는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자와 대표음의 음가, 어휘를 표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첫째 자음자를 발음하는 겹받침 'ㄲ, ㄳ, ㄵ, ㄻ, ㄼ, ㅄ'과 끝 자음자를 발음하는 겹받침 'ㄺ, ㄻ, 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음과 끝 음을 한정해서 소개하는 탓에 환경에 따라 달지는 '밟다', '맑고'의 발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연세 한국어 1-1』은 모음자와 자음자를 음성학적으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강 한국어 1A』는 준비 단원 학습에 앞서 한글을 1~4과로 나누어 각 과에서 제시하는 모음과 자음을 듣기 CD를 활용하여 따라 읽게 하고 있다. 자모자 제시 순서에 있어서 다른 교재와 차이점이 많은데 특히 자음 중 유성음 'ㅁ, ㄴ, ㄹ, ㅇ'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음이면서도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발음하기 쉽고, 유성음을 제외한 무성음은 평음-격음-경음의 자음쌍을 이루어 교육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앞서 배운 자음자를 다음 과의 받침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홑받침만 간략히 나열하였다. 모음자의 순서는 자형 상 단순한 형태부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기본 모음자이며 단모음인 것을 먼저 제시하고 [j]계 이중 모음, 그리고 발음이 유사한 '에, 애'와 '외, 왜, 웨'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서강 한국어 1A』는 표나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자모를 나열하고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고 설명도 영어로만 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다. 또 자모자의 이름과 쓰는 순서, 음절의 구성, 겹받침 학습 등을 포함하지 않아 교재 외의 부교재 사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12]은 1단원에서 6단원에 이르기까지 한글과 관련된 예비 학습을 다루어 분량 면에서 타 교재와 차이를 보인다. 1단원에서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이야기와 한글의 글자 모양 등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기본 자음자와 자음자의 명칭을 소개한 다음에 기본 모음자와 모음자의 명칭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겹자음자 'ㄲ, ㄸ, ㅃ, ㅆ, ㅉ' 5자의 명칭과 구조를, 복합 모음자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11자의 명칭과 구조[13]를 제시하고 이어 쓰기 순서를 제시해 놓았다.

---

11) 1992년에 발간 된 연세대 『한국어 1』과 차이는 설명이 영어로 바뀐 점과 모음의 제시 순서가 이전 교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인 '아 야 어 여'의 순인 반면에 개정판에서는 단모음 제시 후 이중모음을 제시한 점이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반모음의 표시가 [y]에서 [j]로 바뀐 점 등 발음기호 표시가 일부 수정 되었다.

12) 이전 교재에서 변화된 내용은 우선 구성적으로 한글 자모 학습 단원을 예비 편에서 본 단원으로 구성하고 학습량도 크게 늘린 반면에 국제음성기호 표시와 영어로 된 자모의 음성학적 설명은 생략한 점이다. 또 자모 제시가 이전 교재에서는 모든 모음 학습 후에 자음을 학습한데 비해 개정판에서는 기본 자음자, 기본 모음자 순으로 바뀌었다.

13) 예를 들어 자음자 'ㄲ'의 구조를 'ㄱ+ㄱ'으로, 모음자 'ㅐ'의 구조를 'ㅏ+ㅣ'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어의 특징과 학습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컴퓨터 관련 어휘 익히기 등을 제시하고 2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앞서 배운 자모자를 듣고 쓰기, 읽기, 말하기 등의 연습 문제를 통하여 익히고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또 한국어의 특징을 SOV형 언어, 조사와 어미가 발달, 높임법이 발달,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컴퓨터 자판 익히기'에서는 컴퓨터와 자판 그림을 제시하고 자판으로 쳐 볼 수 있는 어휘와 문장을 예로 제시하여 학습 초기의 의욕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징을 자모 교육 시에 제시할 만한 내용인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화 한국어 1-1』은 타 교재와 달리 한글 학습을 본 단원 1과에서 다루어 구성적 차이를 보인다.[14] 먼저 영어로 한국어와 한글을 소개하고 한글 자모 수가 40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기본 모음자 10개, 자음자 14개를 제시하고 있고 이어 나머지 모음자, 쌍자음, 받침 학습으로 구성되었는데,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과 대표음의 음가, 어휘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모자의 음가는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 표기법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다.[15] 자모자의 이름과 쓰는 순서를 번호로 상세히 나타내고 있으며, 자음(2)에서 평음-격음-경음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음절 구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자모자 학습 후에는 듣기와 쓰기 연습으로 연계하여 음운에 대한 변별력을 기르고 어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서울대 한국어 1A』는 본 단원 학습 전 '한글 배우기'에서 한글의 창제 및 제자 원리 등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이어 자음과 모음의 수가 40개임을 명시하고 표로 제시하였는데 자모의 음가는 국제음성기호 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음과 자음을 익히는 '한글 1~3'은 낱자와 음가, 획순을 표로 제시하고 듣고 쓰는 연습 활동, 어휘 학습으로 구성해 놓았다. 이전 교재에서 자음자를 먼저 제시한 것과는 달리[16] 단모음 'ㅏ, ㅓ,

14) 이화여대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발간한 지 12년 만에 새로운 교재 『이화 한국어』를 2010년에 발간하였다. 『이화 한국어』의 1급과 2급 교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판이 있는데, 한국어와 함께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한글 학습을 다루고 있는 1과에서는 모든 설명이 해당 언어로 제시되어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본 단원이 시작되기 전의 '세종대왕과 한글'에서 한글 학습을 하고 있으며, 기본 모음자(10개)와 복합 모음자(11개), 자음자(19개)를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특히 자음의 순서를 조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 순음(ㅁ, ㅂ, ㅃ, ㅍ), 설측음(ㄴ, ㄷ, ㄸ, ㅌ, ㄹ), 치음(ㅅ, ㅆ, ㅈ, ㅉ, ㅊ), 아음(ㅇ, ㄱ, ㄲ, ㅋ), 후음(ㅎ)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15) 예를 들어, 격음인 'ㅋ, ㅌ, ㅍ'은 국제음성기호 [kʰ], [tʰ], [pʰ]로, 경음 'ㄲ, ㄸ, ㅃ'은 로마자 표기법 [kk], [tt], [pp]로 표기하고 있다.

16) 2000년에 발간 된 서울대 『한국어 1』교재에서는 자음자 중 'ㅇ'을 'ㄱ, ㄴ, ㄷ, ㄹ'에 포함하여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 'ㅁ, ㅂ, ㅅ, ㅈ, ㅎ'와 [j]계 이중 모음, 격음, 경음, 그리고 나머지 모음자를 'ㅐ ㅔ ㅒ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순으로 제시하였다. 음가는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받침자를 7가지로 분류하여 어휘로 보여주고 있는데 받침소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쌍받침 중 'ㅆ'이 빠져있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추가하였다.

ㅗ, ㅜ, ㅡ, ㅣ'를 자음자 학습 전에 두었다. 음가는 국제음성기호로 표시하고, 발음법을 한국어와 영어로 덧붙이고 있어 발음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자모의 명칭은 제시하지 않고 '가, 나, 다…'로 읽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y][17]계 이중모음을 제시하고 나머지 모음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허용되는 'ㅚ', 'ㅟ'를 'ㅢ' 앞에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자와 음가를 모두 제시하며 받침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어휘를 함께 보여준다.『서울대 한국어 1A』는 이전의 교재에 비해 정리된 체계로 자모자의 순서를 배열하고 있으며 표와 그림, 사진 등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금까지 특수 목적과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한글 학습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목적에 따른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어 보인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변인과 학습 목적별로 특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글 자모 교육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9종의 한국어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교재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한글 자모 교육에 대한 기본 정보의 차이는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한글 자모 관련 내용 가운데서 표준화된 최소한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글 자모의 수, 제시 순서, 받침 교육의 내용, 자음의 명칭 표기 문제, 그리고 발음 기호의 표기 문제라고 본다. 그 외에 훈민정음의 설명 제시나 교육 방법론적인 문제들은 학습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의 교재 분석의 내용 가운데 본 논문에서 표준화를 제안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모 수에 대해서는 전체 자모를 표로 제시하면서 한글 자모를 40개로 명시한 교재는 (9)[18]이고 (1), (2)는 자모의 개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모 40개를 표로 제시함으

17)『서울대 한국어 1A』에서는 이전 교재에서 [j] 계열로 표기하던 이중모음의 음가 표시를 [y]로 바꿨다.

18) 약호로 제시한 교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국어원. 2010.『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한글파크.
(2) 국립국어원. 2012.『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한글파크.
(3) 국립국어원. 2011.『세종한국어 1』. 가삼기획.
(4)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2.『한글학교 한국어 1』. 국립국제교육원.
(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연세 한국어 1-1』. 연세대학교 출판부.
(6)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서강 한국어 1A』. 도서출판 하우.
(7)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2010.『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 한글파크.
(8)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이화 한국어 1-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로써 자모의 수를 짐작할 수 있게 했고, (8)은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모의 수는 모두 40개임을 명시해놓았다. 교재 (3), (4), (6)은 자모의 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교재 (5)는 현재 자모의 수는 24개임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자모의 제시 순서에 대해서는 교재 (7)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음부터 제시했는데 교재 (7)도 2010년 이전 교재에서는 모음을 먼저 제시했다. 자음의 순서는 교재 (6)을 제외하고 모두 사전 배열식이다. 모음은 교재 (1), (3), (4), (8)은 기본 모음자, 복합 모음자 순이고 교재 (2), (5), (7), (9)는 단모음, 이중모음 순이다. 교재 (6)은 기준을 알기 어렵다. 또 자음의 파열음을 평음 - 격음 - 경음 순으로, 모음은 상형과 합성의 원리에 의한 배열로 전체 자모표를 제시한 교재에는 (1), (2), (8)이 있다. 이 자모표는 전체 자모의 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전개될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도 자모표 제시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앞의 3권의 교재가 담고 있는 자모표의 내용을 비교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자음표는 위치와 순서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음표만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1〉『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ㅚ	ㅟ
[ɑ]	[ə]	[o]	[u]	[ɨ]	[i]	[e]	[ɛ]	[ö/we]	[ü/wi]
ㅑ	ㅕ		ㅛ	ㅠ		ㅖ	ㅒ		
[ya]	[yə]		[yo]	[yu]		[ye]	[yɛ]		
ㅘ	ㅝ			ㅢ		ㅞ	ㅙ		
[wa]	[wə]			[ɨy]		[we]	[wɛ]		

〈표 2〉『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ㅑ	ㅕ	ㅛ	ㅠ			ㅖ	ㅒ
		ㅚ	ㅟ				
		ㅘ	ㅝ				
		ㅞ	ㅙ	ㅢ			

(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서울대 한국어 1A』. 문진미디어.

〈표 3〉『서울대 한국어 1A』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ɑ]	[ə]	[o]	[u]	[ɨ]	[i]	[ɛ]	[e]	[ö/we]	[ü/wi]
ㅑ	ㅕ		ㅛ	ㅠ		ㅒ	ㅖ		
[ya]	[yə]		[yo]	[yu]		[yɛ]	[ye]		
ㅘ	ㅝ					ㅙ	ㅞ		
[wa]	[wə]					[we]	[wɛ]		
				ㅢ					
				[ɯi]					

마지막으로 자모의 교육 내용에서는 복합 받침을 제시한 교재는 (2), (5)이고 나머지는 대표음 연습까지만 제시되어 있다. 교재 (9)에는 받침의 음가를 국제음성기호로 적으면서 파열음의 음절말 표시 [k̚], [t̚], [p̚]를 해 둔 것이 특징이다. 자음의 명칭을 한글로 표기한 교재에는 (2), (3), (5), (6), (7)이 있고 발음기호를 표기한 교재는 (1), (5), (8), (9)이다. 그리고 발음기호 표기에서는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교재는 (1), (5), (9)이고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를 혼합하여 표기한 교재는 (8)이다. 교재 (6)은 로마자와 영어 단어를 혼합해서 표기했다. 국제음성기호로 표기된 교재 가운데에서도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발음기호들이 있어서 표준화를 위해 비교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국제음성기호: 모음

음운	외			위			반모음		워		의			
기호	ø/we	ö/we	we	y/yi	ü/wi	wi	j	y	wo	wə	ɨi	ɨɨ	ɨy	ɯi
교재	(5)	(1),(9)	(8)	(5)	(1),(9)	(8)	(5),(8)	(1),(9)	(5)	(1),(8),(9)	(5)	(8)	(1)	(9)

〈표 5〉 국제음성기호: 자음

음운	ㄱ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ㅉ
기호	k/g	t/d	r/l	p/b	s	ø/ŋ	ʧ/j		ʧʰ		kʰ	tʰ	pʰ	k′	t′	p′	s′	ʧ′
교재	(1),(8),(9)	(1),(8),(9)	(1),(8),(9)	(1),(8),(9)	(1),(5),(9)	(1),(9)	(1),(9)		(1),(9)		(1),(8),(9)	(1),(8),(9)	(1),(8),(9)	(1),(9)	(1),(9)	(1),(9)	(1),(9)	(1),(9)
기호	k	t	l	p	s/sh		c	ch	ch′	cʰ	k′	t′	p′	kk	tt	pp	ss	cc
교재	(5)	(5)	(5)	(5)	(8)	(5),(8)	(8)	(5)	(5)	(8)	(5)	(5)	(5)	(8)	(8)	(8)	(8)	(8)

* ‘ㅇ‘에 대해서 교재 (5), (8)은 다른 교재와 달리 발음 표기를 하지 않은 대신에 받침 제시 때 [ŋ]을 표기하여 초성에 음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경음에 대해서 교재 (5)는 발음기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2.3. 초등 국어 교과서의 한글 교육

아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어 교과서는 2009년의 개정교육과정 총론[19]에 의거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개정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2013년에 발행된 국어과 교과서는 기존의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언어 기능별 교재 구성이 아니라 『국어』와 『국어 활동』의 통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1~2학년 군 『국어 ①-가』, 『국어 ①-나』에 한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학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초등 국어 교과서의 한글 자모 내용

권	단원	주요 내용
국어 ①-가	2단원 재미있는 낱자	· 자음자의 이름을 알고 순서에 맞게 쓰기(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역, 니은, 디귿, 리을…] · 모음자의 이름을 알고 순서에 맞게 쓰기(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아, 야, 어, 여…] · 같은 낱자가 들어간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3단원 글자를 만들어요	· 글자의 짜임을 알고 소리 내어 읽기 · 받침(ㅇ, ㅌ, ㄴ, ㄹ)이 있는 글자 만들기 · 글자표를 보고 낱말 만들기
국어 ①-나	6단원 문장을 바르게	·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말하기 · 흉내내는 말 알아보기 · 자음자를 더 알아보고 순서에 맞게 쓰기(ㄲ ㄸ ㅃ ㅆ 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 모음자를 더 알아보고 순서에 맞게 쓰기(ㅐ ㅒ ㅚ ㅟ ㅘ ㅙ) [애, 에, 외…]
	7단원 알맞게 띄어 읽어요	·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 알기 ·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 알기

19) 2009년 6월 11일에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과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국가에서 만들고 다양한 규제 지침으로 관리 감독하던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에서는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들을 학교에 위임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14년에는 3~4학년, 2015년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발달단계가 비슷한 2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 군으로 통합하여 교과목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국어 ①-가』 2단원 '재미있는 낱자'에서 기본 자음자 14개, 모음자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자모자의 제시 순서와 이름(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한글 맞춤법」 규정과 동일하다.

이는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도 같다. 하지만 『국어 ①-나』 6단원의 된소리와 복합 모음자에 관련된 내용은 이전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학습자가 기본 자모자를 다 익힌 후 문장 표현을 익히면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된소리 학습은 흉내 내는 말(짹짹, 폴짝폴짝, 뒤뚱뒤뚱, 꽥꽥 등)의 표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의미 중심과 발음 중심의 접근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합 모음자 중 'ㅐ, ㅖ, ㅚ, ㅟ, ㅘ, ㅙ'만 제시하고 있어 나머지 모음자 'ㅒ, ㅖ, ㅝ, ㅞ, ㅢ'의 학습은 다루지 않았다. 『국어 ①-가』 3단원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데, 제시되고 있는 받침 글자는 'ㅇ, ㅌ, ㄴ, ㄹ'로 이들 받침의 제시 기준을 알기 어렵고, 나머지 받침 'ㄱ, ㄷ, ㅁ, ㅂ, ㅅ, ㅈ, ㅎ'과 겹받침의 학습은 다루지 않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한글 자모 교육이 다른 한국어 교재와 크게 구분되는 점은 받침 교육인데 이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 역량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 자녀들 대상의 『한글학교 한국어 1』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더구나 초등학교 1학년은 본 교재를 학습하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발행한 교재[20]를 사용하여 입학 초기에 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교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모의 순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국어』 교과서와도 자모의 순서가 달라서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 자모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도 교재에 관계없이 모든 한글 자모 교육 첫머리에 표준화된 자모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층위를 나누어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행한 『1학년이 되었어요』의 경우, 3과~4과에서 한글 학습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따라 모음자 'ㅡ, ㅣ, ㅏ, ㅓ, ㅗ, ㅜ / ㅑ, ㅕ, ㅛ, ㅠ'를 먼저 학습하고 자음자 'ㄱ, ㅋ, ㄴ, ㄷ, ㅌ, ㄹ / ㅁ, ㅂ, ㅍ / ㅅ, ㅈ, ㅊ / ㅇ, ㅎ'를 학습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2.4.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와 국어 교과서의 한글 자모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와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글 교육의 다양한 내용과 제시 방법의 통합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모자의 수와 관련하여 겹자모자를 자모에 포함할 것인가와 제시순서를 기존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고, 받침을 제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고려하여 배열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국어 교과서에서는 자음자를 먼저 제시하고 모음자를 제시하는 반면,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대부분은 모음자를 먼저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음자의 경우 음운 중심의 「표준 발음법」을 제외하고, 평음-격음-경음의 순서로 제시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모음자의 경우 제시되는 층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상의 기본 모음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와 단모음(ㅏ ㅓ ㅗ ㅜ ㅡ ㅣ)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j]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을 구별하는 경우와 구별하지 않는 경우, ‘ㅢ’를 [w]계 이중모음에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둘째, 자모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으로 교사와 학습자 모두 비슷한 발음을 구별하는 것, 다음으로 받침을 발음하고 쓰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복합 받침자의 구별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복합 받침을 다루지 않고 연구자들도 자모 학습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합 받침 학습과 관련한 요구조사에서 현장 교사의 대부분은 자모 수업 시 고빈도의 일부를 가르치는 것을 선택한 반면 학습자는 자모 수업 시 모두 배우는 것과 고빈도의 일부만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받침 학습에 따른 관점의 차이도 효율적인 자모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모자의 명칭 제시 여부와 제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어느 단계에서 제시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 교과서에서는 자음자를 학습할 때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등으로 제시하고 학습하지만,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에서는 자모 학습 시 자모자의 명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초급 이상의 단계에서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의 요구조사에서 자음자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고,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는 자음자의 이름 보다는 ‘그,

느, 드……’ 또는 ‘가, 나, 다……’로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21] 반면,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조사에서는 맞춤법이나 불규칙 설명 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음자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넷째, 발음 표기 여부와 표기한다면 표기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글 자모자를 한국어 학습의 시작으로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입모양을 보거나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것 외에도 혼자 학습을 하거나 기억을 돕기 위한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할 기호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음 표기 방식은 국제음성기호로 제시한 것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로마자 표기법과 영어 단어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다. 또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 표기법을 혼용하거나 개별 낱자의 조음의 특성에 따라 표기 방식을 선택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법의 장단점을 들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국제음성기호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22]이 많으나 일반 학습자들은 국제음성기호에 익숙하지 않아서 국제음성기호를 추가로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자모의 수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자모자 24자에서 제외된 ‘붙임 1’의 자모자를 전체 자모자에 포함하여 모두 40개로 제시하는 것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시 순서는 음절 구성이 가능한 모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가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시 방법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활용하도록 한다.[23]

모음자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먼저 제시하고 초출자, 재출자를 제시하여 기억에 용이하도록 한다.[24] 자음자의 순서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으로, 방법은 상형과 가획, 병서의 원리로 제시하여 비슷한 자형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발음 교육 시에도 같은 조음점을 활용한 방법으로 소리의 변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자모표는 아래와 같다.

---

21) 북한은 ‘기윽, 니은, 디은 …’으로 정하고 ‘그, 느, 드…’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2) 여기에는 오광근(2008), 양명희(2009) 등이 있다.
23) 안찬현(2011)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한글 자모자 교육 시 학생들의 자형 인식과 기억에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자모자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이용한 자모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24) 모음자의 초출자와 재출자 학습은 휴대전화 문자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제시, 활용할 수 있다.

〈표6〉[25] 자모표

ㄱ. 모음자 ㅗ ㅜ ㅏ ㅓ ㅡ ㅣ // ㅐ ㅔ ㅚ ㅟ ㅛ ㅠ ㅑ ㅕ ㅒ ㅖ ㅘ ㅝ // ㅙ ㅞ ㅢ
ㄴ. 자음자 ㄱ / ㄴ ㄷ ㄹ / ㅁ ㅂ / ㅅ ㅈ / ㅇ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이응 ㅋ ㅌ ㅍ ㅊ ㅎ 키읔 티읕 피읖 치읓 히읗 ㄲ ㄸ ㅃ ㅆ 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ㄷ. 받침자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 ㄹ / ㅁ / ㅂ ㅍ / ㅇ
ㄹ. 복합 받침자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위의 같은 자모표를 한글 자모 교육 내용의 맨 첫머리에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앞으로 배우게 될 한글 자모의 숫자와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를 모든 한글 자모 교육 시에 가장 먼저 제시한 후에는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자 변인에 따라 학습 기간이나 방법을 달리 하여도 학습자가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복합 받침자를 제시한 교재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과 『연세 한국어 1-1』뿐이다. 그 외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와 초등 국어 교과서는 복합 받침을 본 단원에 들어가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어려운 받침의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학습에 부담을 안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자모표 제시와 함께 복합 받침도 함께 제시하여 한국어의 표기에 사용되는 모든 문자를 학습 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읽다'와 같이 비교적 학습 초기에 접하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학습 시기는 학습자 변인에 따라 단계별로 달리 적용하면 될 것이다.

25)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모표와 같은 원리로 제시한 교재는 〈표1〉, 〈표2〉, 〈표3〉이 있는데 이들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음표는 서로 동일하고 본 논문과는 'ㅈ'과 'ㅇ'의 순서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모음의 제시 순서는 〈표1〉, 〈표2〉, 〈표3〉, 〈표6〉의 내용이 복합 모음자의 순서와 위치에서 견해를 조금씩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한국어 교재들과는 달리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장차 통일 시대의 한글 자모 표준화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이 방법을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모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한글 자모 교육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표준화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음자의 한글 명칭은 자모표에 함께 제시하고 학습 시기는 받침 교육 시에 김지형(2008)에서 제안한 것처럼 받침 발음의 연습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발음기호의 표기는 한국어 교재에 한하여 한국어 음운을 최대한 근접하게 적을 수 있는 국제음성기호로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모국어도 병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표4, 5〉에 제시한 내용처럼 서로 다르게 표기한 발음기호들에 대해서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 음성기호의 통일 문제는 또 다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마무리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 즉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성인 학습자가 주를 이룬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고 한국어 교육 내에서도 기관마다 각각 자체적인 교재 개발로 기본 정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어 교육은 우리의 국어 교육과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자는 같으므로 한글 학습 시 제시되는 한글 자모의 기본 정보는 동일해야 한다고 본다. 여타 외국어의 알파벳 학습 순서는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들 간의 차이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변인에 따른 교수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교육 방향의 표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적합한 학습·교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국어 교과서,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와 교육 현장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글 자모 교육 시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표준화의 내용인 한글 자모의 수와 제시 순서, 자모의 명칭 표기 문제, 받침의 제시 문제가 모든 한글 자모 교육에서 통일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표6〉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0.『한국어초급 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2010.『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 서울: 한글파크.
- 교육과학기술부. 2012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 2012ㄴ. “한국어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별책 27]).”
- 교육과학기술부. 2012ㄷ. “2013 초등 1~2학년군 교과용도서 연수교재.”
- 교육과학기술부. 2013.『국어 ①-가』,『국어 ①-나』,『국어 활동 ①-가』,『국어 활동 ①-나』. 서울: 미래엔.
- 국립국어원. 2010.『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서울: 한글파크.
- 국립국어원. 2011.『세종한국어 1』. 서울: 가삼기획.
- 국립국어원. 2012.『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서울: 한글파크.
-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013.『1학년이 되었어요』. 대구광역시교육청.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4.『서강 한국어 1A』.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서강 한국어 1A』.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2000.『한국어 1』. 서울: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서울대 한국어 1A』. 서울: 문진미디어.
- 연세대대학교 한국어학당. 1992.『한국어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연세 한국어 1-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9.『말이 트이는 한국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이화 한국어 1-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2.『한글학교 한국어 1』. 국립국제교육원.

2. 논저

- 김미미. 2012. “한글 *子母字* 교육 내용의 문제점과 수정 방안 - *子母字* 목록을 중심으로-.”『한국문법교육학회 제16차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 김미미. 2012. “한글 *子母字* 배열의 역사적 변천과 그 수정의 필요성.”『국어사연구』제14호.
- 김숙정. 2013.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진.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재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형. 2007.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육 방안.”『국어국문학』147, 221-258.

■ 남경란. 2009. “중세국어 음운현상의 교육 방안 -고등학교 국어(상, 하)의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43.
■ 박지원.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경철. 1995. “한글의 언어 구조적 교육방법.”『이중언어학』12.
■ 신헌재 외. 2009.『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박이정.
■ 안찬원. 2011.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른 한글 자모 교육.”『문법 교육』제15호.
■ 양명희. 2009.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글 자모와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하여.”『어문논집』제41집.
■ 여찬영.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Book 1『한국어 교본』연구.”『인문과학연구』제16집, 257-278.
■ 오광근. 2008. “기초단계의 한국어 자모(字母) 교육-통합교재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제53호, 181-208.
■ 원순옥. 2007. “문화체험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한글말글학』제24집.
■ 원진숙. 2008.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한국초등국어교육』제40집.
■ 이경화 외. 2008.『한글 깨치기 비법-기초 문식성 지도 방안』. 서울: 박이정.
■ 이문규. 2012.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법 교육.”『국어교육연구』제50집.
■ 이미향. 2007. “효율적인 교수 모형 계발을 위한 한국어교재의 한글 교수 단원 연구.”『언어과학연구』42.
■ 이은규. 2012. “체코 대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음운 분야를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52.
■ 이화숙. 2013.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한국학연구』제45집.
■ 이해영. 2007.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재한 몽골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제33호.
■ 조규태. 2000.『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서울: 한국문화사.
■ 조현용. 1999. “한국어 자모교육을 통한 어휘교육.”『어문연구』103호.
■ 하세가와 유키모. 1997.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바탕을 둔 한글 자모와 그 발음 지도에 대해.”『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7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허재영. 2010.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의미.”『교양교육연구』제4권 제1호.
■ 허철구. 2008. “한글 자모순의 성립 과정과 과제.”『士林語文硏究』제18집.
■ 홍윤표. 2013.『한글 이야기 1 - 한글의 역사』. 서울: 태학사.
■ Albrecht Huwe. 2000. “본래의 한글 자모 체계.”『한국어교육』11-2.

| Abstract |

Plans to Standardize Korean Alphabet Education

Won, Sun-ok (Kyungwoon University)
Kang, Ju-Yeong (Catholic Univerisity of Daegu)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Korean alphabet education performed variously now to grope ways to integrate Korean alphabet educations. For this, Korean alphabet systems regulated in 'The rules of Korean orthography' and 'The standard pronunciation of korean' are examined, and ways to present Korean alphabet that appear in the textbooks used in Korean education for the foreigners and the textbooks used in the official language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are compared.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se regulations and the textbooks, it seems desirous to implement systematic and effective Korean alphabet education through standardization such as contents, orders and methods provided in Korean alphabet education.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considered to standardize the Korean alphabet education.

First, criteria over the number of consonants-vowels and the order of suggestions shall be established.

Second, it shall be established whether to suggest the names of consonants-vowels and in which way and which stage they shall be suggested.

Third, it shall be established whether the pronunciation would be marked and how the marking would be like.

The Korean alphabet whoever use it, regardless of Koreans or foreigners is same. Therefore, the contents, orders, and methodologies suggested while they study Korean must be the same. Of course, the teaching ways depending on learners' variables can be different. However, basically, the directions of education which become a premise should be standardized. It will be helpful to make

leaners and instructors find suitable teaching methods and reduce confusion.

To these ends, in the body, the plans to standardize Korean Alphabet Education are suggested as follows. The number of alphabet should be suggested with 40 letters. The order to suggest alphabet should follow the principles of making words in Hunmin Jeongeum to help recognize and remember the letters. The Korean names are better to be marked while educating Alphabet. The phonetic values of Alphabet should be suggested by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f necessary, mother tongues of learners can be used.

〈Key words〉 Hangeul, Korean alphabet, Korean education for the foreigners, standardization, Hunminjeongeum